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명예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내란 수사도 특검을 통해 비교적 올바르게 진행되고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또한 제대로 진행되면서, 그처럼 큰 죄악들을 둘러싼 거짓과 속임수도 차츰 밝혀지고 있다. 이제 계엄령의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차분하게 옛날의 책을 차근차근 읽을 수 있겠다. 18년이라는 모진 귀양살이 동안에도 고향에 두고 온 두 아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만 그렇게도 바라던 다산 정약용은 참으로 간절한 내용을 담은 수많은 편지들을 두 아들에게 보내고 또 보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는 주옥같은 다산의 가르침이 가득 담겨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성실함이나 조금이라도 속임이 없어야 한다. 하늘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쁘고 임금과 아버이를 속이는 것부터 농부가 농부를 속이고 상인이 상인을 속이는데 이르기까지 모두 죄악에 빠지는 것이다(又示二子家誡).”라고 말하며 하늘 즉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 가장 나쁜 일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때의 임금은 지금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비가 갠 아침, 어디선가 매미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소리의 출처는 안방 창문 쪽. 방충망에 착 달라붙은 매미 한 마리가 기세 좋게 울고 있다. 신생아의 첫울음처럼 방 안 가득 싱싱한 기운을 퍼뜨린다. 오호라, 여기까지 찾아와준 것도 고맙고 이렇게 우는 것은 더 뭉클한 일이다.

매미는, 어쩌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엇이다. 해마다 같은 계절, 같은 시간에 울지만, 그 울음은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여름이면 늘 있었던 익숙한 소리지만, 작년의 내가 들던 울음과 올해의 내가 듣는 울음은 전혀 다르다. 같은 소리, 그러나 다른 마음.

누군가에게 매미 울음이 잊었던 여름의 냄새를, 또 다른 이에게 오래 묵힌 그리움을 꺼내게 한다. 작년의 나는 아득한 어린 날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올해의 나는 어떤 상실 앞에서 매미를 듣고 있다. 내년의 나는 또 다른 자리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 이 울음을 듣게 되겠다. 매미의 생은 더욱 우리를 멈춰 세운다. 땅속에서 수년을 버티며 견뎌낸 뒤, 지상에서 겨우 며칠 남지 않다가 생을 마감하는 존재. 눈앞에 보이는 시간은 참나이지만, 그 울음은 오랜 기다림 끝에 터진 것이다. 생의

기고



하지수
(주)여수와 대표이사

여행의 진정한 묘미는 무엇일까?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고 유명 관광지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좋지만, 요즘은 지역의 숨결을 느끼고 그곳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경험을 보다 값진 여행이라고도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짜’ 여행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의 전통시장이다.

요즘 많은 이들이 해외로 혹은 유명 관광지로 떠나지만 정작 우리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K-컬처 열풍과 함께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은 젊은 세대에게는 다소 낯설고 어르신들의 공간으로만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전통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발길 닿는 대로 전통시장을 거닐다 보면 오감(五感)이 즐거워진다. 갓 튀겨낸 튀김의 고소한 냄새, 팔딱이는 생선의 활기찬 모습, 상인들의 정겨운 사투리가 어우러진 흥정 소리, 알록달록한 제철 과일과 신선한 채소들의 색깔이 눈을 즐겁게 한다. 다른 곳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생동감과 활력이 시장 골목마다 가득하다.

거짓과 속임수의 세상은 끝내야

으로 치면 나라이다. 나라를 속이고 부모를 속이는 일 또한 하늘을 속이는 일 못지않게 악한 죄이다. 동료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는 일이라고 나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양심이나 나라를 속이는 일에 비해서는 덜 하다고 여길 수 있다.

요즘 내란 재판에서 폭로되는 거짓과 속임수를 지켜보고 3대 특검을 통해 조사되는 과정의 거짓과 속임수를 들여보면, 국가의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 뻔한 거짓말을 서슴없이 지껄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저럴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간성에 대한 참담한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녹화된 육성으로 그런 일을 했노라고 온 국민들이 직접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생떼를 쓰고 거짓말을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해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 대한 한 없는 실망에 빠지지 않을 길이 없다.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내겠다는 다짐을 받았기에 임명했는데 총장이 되자마자 그와는 반대되는 일만 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속았다는 죄책감을 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대통령을 감쪽같이 속여먹고 검찰총장이라는 큰 직책에 올랐으니 속임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기에 여쭙지 않다.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이든’이나 ‘날리만’이라는 공생한 억지 변명으로 국민을 당혹스럽게 한 이래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나라를 속이고 국민을 속여 아내를 보위하고 나라는 망가지게 하고 말았던가.

감옥에 갇힌 내란 수괴의 혐의자는 또 얼마나 많은 거짓과 속임수를 부리고 있는가. 몸이 아프다고 수사와 재판에는 나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구속적부심 재판에는 멸똥한 모습으로 출석하는 모습, 그 또한 얼마나 가당치 않은 거짓과 속임수인가. 체포영장의 구인에는 옷을 벗고 시위하며 병이 났다고 속이다가 변호인 접견에는 옷을 입고 나타나는 그 후안무치한 속임수, 이렇게 뻔한 속임수가 계속 통하는 오늘이니 이것이 법치주의 국가란 말인가. 어느 순간 잠깐 거짓과 속임은 통할 수 있다. 그런데 3년이 넘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거짓과 속임수가 통할 수 있다면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던 말인가.

지금은 내란 수괴의 문제만이 아니다. 아직도 반탄이 옳았고 부정선거는 사실이고 계엄령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친윤 세력들이 있다. 거짓과 속임수에 철저히 눈을 감고 자기 진영의 이익만을 위해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만 있는 세력들이 아직도 큰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진정한 국가적 위험요소이다. 내란도 좋고 거짓과 속임수도 옳기만 하다는 세력들, 이들이 온존하는 한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정말로 거짓과 속임수의 세력은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 특검과 재판에서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와 정의로운 재판으로 거짓과 속임수를 완전히 몰아내는 세상이 반드시 와야 한다.

매미, 한 생의 문장

대부분을 침묵으로 채우고, 마지막 순간을 울음으로 불태우는 생. 그 안에 담긴 절박하고 비장한 곡조가 들리는 사람의 마음조차 서늘하게 뒤흔든다.

옛사람들도 매미의 울음을 허투루 듣지 않았나 보다. 그들은 매미에게서 다섯 가지 덕을 보았다. 머리의 관은 군자의 기품을, 높은 가지에 매달린 습성은 고결함을, 이슬만을 먹는 습성은 청렴함을, 먼저 울어 계절을 알리는 모습은 성실과 용기를, 죽어서도 관바로 떨어지지 않는 습성은 절개를 상징한다고 했다. 요컨대 매미는 고결한 정신의 표상으로, 올곧은 선비의 문장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실제로 매미의 울음은 하나의 문장과도 같다. 침묵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울 수 있게 되었을 때, 매미는 목청이 아닌 몸 전체로 노래한다. 그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신호를 넘어 자기 존재를 남기려는 간절한 전문(傳文)이다. 말이 없던 생애를 대신해 울음으로 말하는 존재. 그 울음에는 기다림의 무게와 순간의 빛이 하나로 겹쳐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자신만의 여름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이 매미에 귀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매미의 울음은 여름이라는 한 삶을 통째로 넘기는 소리다. 여름은 충만과 절정의 계절이다. 봄이 약속과 시작의 계절이라면, 여름은 이미 도달한 생의 한가운데를 드러낸다.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이 빛과 열과 생의 절정을 쏟아내는 계절. 그래서 여름의 문장은 뜨겁고 격렬하며 단 한 번의 절정에서 숨을 멈춘다. 너무 짝아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다.

여름의 문장은 덧없음의 문장이기도 하다. 너무 충만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의 빛과 열은 불잔을 수 없기에, 우리는 더더욱 귀 기울여 기억하려 애쓴다. 땅속의 긴 침묵과 지상의 짧은 절정이 한 줄기 울음으로 연결될 때, 그 문장은 종이에 스며들지 않고 공기 속에 퍼져 나뭇잎을 타고 흐른다. 그 소리는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각자의 이야기로 자라난다.

매미의 울음은 단순한 생존의 외침이 아니다. 그것은 몸을 문장 삼아 써 내려간 삶의 문장이다. 긴 기다림을 거쳐 비로소 허물을 벗고, 세상을 향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써 내려간 글. 그 문장은 문법도 없고 수사도 없지만, 존재의 전력을 다해서 쓴 절절한 고백이 담겨 있다. 텅 빈 방충망을 바라보다가, 나는 그 소리에 갇든 여름을 다시 돌아본다. 매미는 울고 갔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다. 시끄럽다고 고개를 돌리거나, 너무 오래 침묵한 생의 진동이 그 속에 있다. 잠시 스쳐 갔을 뿐인 한 존재의 숨결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말 속에서 삶을 읽는다. 매미의 울음 속에도 땅속에서 보낸 긴 기다림과 지상에서의 짧은 절정이 한꺼번에 녹아 있다. 거기에는 ‘살았다’라는 증명과 ‘다녀감’이라는 흔적이 오롯이 남는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일은 한 생의 시작과 끝을 동시에 목격하는 일과도 같다.

올여름, 한 마리 매미의 울음을 들었다면, 그것은 한 생의 문장을 읽은 것이다. 그 문장은 뜨겁고도 짙아 읽는 순간 이미 사라져버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읽고, 또 쓰고 있을 것이다.

전통시장서 발견하는 진짜매기 지역 여행의 맛

실제로 세계적인 도시에서도 전통시장은 여행자에게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보케리아 시장’ (La Boqueria)이 대표적이다. 랍블라스 거리 한쪽에 자리한 이 시장은 화려한 색깔의 신선한 과일 주스와 하몬, 해산물, 타파스 등을 판매하며 미식가들의 성지로 불린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바르셀로나 시민들의 일상과 활기찬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관광객들은 시장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현지 셰프와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배우며 그 지역의 식문화에 깊숙이 빠져들기도 한다. 보케리아 시장은 전통시장이 어떻게 현대적인 관광 콘텐츠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특히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식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다. 로컬 식재료를 구경하고 낯선 향토 음식을 맛보는 것은 그 지역을 깊이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시장통에서 파는 소박한 국밥 한 그릇, 직접 담근 반찬 등은 여행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함께 ‘진짜’ 그 지역의 맛을 선사한다.

광주에도 이러한 매력을 지닌 전통시장이 많다. 그중 광주 북구에 자리한 ‘말바우시장’은 광주를 대표하는 시장이다. 끝자리 2, 4, 7, 9일에 장이 서는 5일장이 열리면 평균 2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 정도로 활기차다. 이곳에서는 구래, 순창, 곡성 등 전남 각지에서 직접 키운 신선한 채소를 가져와 파는 할머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할머니 골목’이 특히 유명하다. 기름진 남도 땅에서 난 잡곡과 흙이 등 풍성한 식재료는 물론 뜨끈한 국밥과 팔죽 등 시장 먹거리 또한 일품이다. 말

바우시장을 방문하면 광주 시민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며 진정한 광주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

더 나아가 전통시장은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자 문화 교류의 장이다. 상인들과 손님 사이의 짧은 대화 속에는 정이 오고 가고 지역의 소식과 삶의 지혜가 전해진다. 시장을 통해 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엿보고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 게다가 여행지에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할 때 전통시장은 좋은 답이 되기도 한다. 시장에 가득한 제철 재료를 확인하고 그 재료의 음식을 선택한다면 실패할 리가 없다.

물론 전통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시설 현대화, 위생 개선, 젊은 세대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노력과 함께 전통시장이 가진 본연의 매력, 즉 ‘사람 냄새’와 ‘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이름난 관광지 리스트에 ‘전통시장 방문’을 추가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곳에서 기대 이상의 즐거움과 함께 진정으로 살아있는 지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전통시장의 작은 골목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특별한 경험들이 여행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진정한 지역의 매력은 전통시장의 소박한 풍경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여행의 또 다른 행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社說

호남 고속철 티켓전쟁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KTX와 SRT 등 호남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예매 전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광주송정~오송간 선로 용량이 충분한데도 한국철도공사가 지역민들의 증편 요구에 눈감고 있다는 데 있다.

광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송정에서 오송까지 1일 운행이 가능한 선로 용량은 178회이지만 열차는 60회만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로 용량 대비 운행률이 33.7%로 오송~대전 구간 81.%와 대전~동대구 구간 81.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권 내에서도 편차가 심해 광주 송정역은 전복 익산역에 비해 수요는 1.7배 많은데도 좌석수는 크게 부족하다. 실제로 익산역에는 70대가 편성됐지만 광주 송정역에는 48대에 그치고 있다.

광주연구원은 국내 고속철 수요의 12%가 호남에 있지만 열차 배정은 3%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 자료를 공개했는데

호남에 대한 차별이 고속철도 시대에서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철도공사는 증편이 힘든 이유로 평택~오송 구간에 달하는 이 구간의 복선화 작업이 끝나는 2028년까지는 증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의지의 문제다. 수요를 기반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전문가들은 광주 송정과 목포 등 호남 축 주요 거점역 기준으로 운행 스케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송에서 수도권까지는 환승 수단을 마련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조건 2028년까지 참으라고 할 일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공공기관의 책무 아닌가. 선로 용량이 충분한 오송구간까지는 편수를 늘리고 호남선과 경부선이 함께 사용하는 오송~수도권 구간은 수요에 따라 호남선에 더 배정하면 될 일이다.

‘혈세 폭탄·악취 쉬쉬’ SRF…시민이 봉인가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있는 자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설 운영자인 ‘정정빛고을’의 위탁사인 포스코이앤씨가 광주시에 2100억원의 손실액 보전을 요구해 물의를 빚는데 이어 이번에는 SRF의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쉬쉬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스코이앤씨의 2100억원 요구는 광주 시와 협의를 통해 단산제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휴화산일 뿐이다. 포스코는 SRF 운영 손실액을 당초 78억원에서 11개월만에 27배나 올려 비난을 샀다. 여론에 밀려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다시 중재 신청을 재개할지 모르고 광주시의 요구대로 민사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손실액이 얼마로 결정될지 모를 일이다.

어찌 됐건 SRF 손실액 보전에 시민 혈

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SRF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일단은 무시하고 포스코는 물론 광주시와 남구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다.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 6월 광주시 의뢰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복합악취 수치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 500을 넘어 669를 기록했는데도 광주시는 물론 관할인 남구 모두 쉬쉬한 것이다.

포스코는 그동안다치더라도 관리감독 기관인 광주시와 남구의 무책임한 대처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광주시는 포스코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남구는 운영 권한이 없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혈세 폭탄에 악취를 쉬쉬하는 SRF 행정에 대해 광주시민들은 ‘우리들이 봉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운영 손실액부터 악취 민원까지 관계 당국의 보다 책임있는 행정을 요구한다.

無等鼓

청해진 유적 국가유산 지정 40주년을 맞아 완도군이 최근 개최한 장보고 국제 학술회에서 1200년 전 신라시대의 고기후(古氣候)가 소개됐다. 일본 고베여자대학 아마우치 신지(山内 新次) 교수는 ‘일본 고대 국제 교류사 연구에서 본 장보고’ 논문에서 서기 840년대 급격한 기후 변화를 주목했다. 장보고의 활동 연대(8세기 말~841년)와 겹치는 이 시기에 신라는 급격한 기온 저하를 동반한 한랭 기후를 겪었다. 실제 삼국사기에는 애장왕(809년) 재위 당시 1년 동안 이어진 가뭄을 시작으로 798년부터 897년까지 가뭄, 기근, 흉수 등 기상이변이 27차례 등장한다. 기후한랭화와 강수량의 급격한 감소는 동아시아 왕조의 흥망과 사회체제에도 격변을 일으켰다. 일본에서는 잦은 기근과 역병이 발생했고 859년~884년에 걸쳐 당나라에서는 구포의 난, 방호의 난, 황소의 난, 이극용의 난 등 반란이 이어졌다. 840년 위구르 제국이 와해됐고 842년 티베트 제국이 무너졌다. 아마우치 신지 교수는 극한 기상현상에서 장보고의 당나라 진출의 이유를 유추

한다. “사회적 피폐와 혼란 속에서 신라인들 중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는 이들이 다수 등장했고, 젊은 시절 장보고도 대규모 인구 이동의 흐름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장보고가 원대한 꿈을 품고 당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살길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는 설명이다. 같은 시기 신라인이 일본으로 이주한 사실이 일본 역사기록에도 등장한다.

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기후재앙이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난화 때문이라는 주장과 단지 지구 기후의 장기변동과 관련된 현상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변명과 쇠퇴가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기상이변은 국제적으로 뉴노멀이 됐다. 최근 광주·전남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괴물폭우’가 쏟아진 것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 기상이변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 운명을 결정하는 당면과제가 됐다. 장구한 인류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이다. /윤영기 정치·경제담당 에디터 penfoot@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에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